

광주 학교·관공서 건축자재서 석면 검출

환경단체 백시멘트·황토몰탈 등 공사현장 시료 채취 분석 광산구청 구내식당·남초교 시공현장... 당국 전수조사 촉구

지역 환경단체가 광주의 초등학교와 구청 공사현장 등에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 석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하는 1군 발암물질로 백색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은 인체 노출 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7월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황토제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인터넷 쇼핑몰 및 건축 자재상에서 판매 중인 20개(서울 자재상 5곳, 광주 자재상 4곳, 온라인 쇼핑몰 11곳 등) 백시멘트와 황토몰탈 제품을 구입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석면 함유 여부 등을 분석했다. 전자현미경 정밀 분석 결과, 20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0.25~7% 검출됐다.

이들 6개 제품은 광주·전남권에서 주로 판매되는 천마실업의 '칼라시멘트'와 황토제품, 경기 여주 등에서 만든 '참황토',

'자연애', '건강황토몰탈' 등 황토몰탈 제품이다.

환경단체는 제보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공사현장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이들 제품에 대한 분석도 진행했다.

최근 벽돌공사가 완료된 광주 광산구청 지하 2층 구내식당 벽면서 0.25%, 광주남초등학교 빨간벽돌매직 시공 현장 두 곳에서 각각 1%와 0.5% 농도의 석면과 줄눈시멘트에서 0.25% 미만의 석면이 검출됐다.

시공이 한창인 화순 개인 주택의 경우 화장실 타일시멘트와 황토바닥 시공 현장에서 1.5~1.75%의 석면이 나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제품 원료인 활석(탈크·talc)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분석했다. 활석은 지난 2009년 '석면 베이비 파우더' 파동의 원인 물질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사문석과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석면이 함유된 활석은 석면과 같이 발암성을 갖는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2009년부터의 석면제품 사용 금지 규제 어긴 불법정황이 있다"며 "석면함유가 확인된 백시멘트 및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석면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토제품에 대해 생산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마실업이 광주·전남 다수 학교 공사에 우리 제품이 공급하고 있다"면서 "사용된 시설물에 대해 비석면제품으로 교체하고 석면노출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들은 정부와 교육청 등 관계 당국의 시급한 전수조사와 ▲거듭되는 국내 제품의 석면안전관리 실패에 대해 관계당국의 관리 책임 ▲완화된 석

면제품 사용금지 농도를 1%에서 0.1%로 되돌려 놓고 석면폐기물 기준을 강화 등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구멍 난 석면 안전정책을 되짚어 보고, 이 중 상중의 생활 속 석면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안전조치를 시급히 취하지 않을 경우, 석면제품 제조사와 관계당국의 책임을 묻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차이나센터, 한·중 문화 콘텐츠 UCC 공모전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 차이나센터가 주관하는 '2020 한·중 문화 콘텐츠 UCC 공모전'이 '2020 광주광역시 중국 문화주간(10월 24일~10월 30일)' 기간 동안 개최된다.

내가 생각하는 한국과 중국, 중국과 나의 연결고리, 특색있는 한·중 모습, 한·중 역사, 문화, 관광지 등 한·중 관련 모든 자유 주제로 참여가 가능하다.

'2020 한중 문화 콘텐츠 UCC 공모전'은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내·외국인(개인 또는 5인 이하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각 부문별로 대상(광주광역시장상), 최우수상(주광주중국총영사상), 우수상(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장상), 입선(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장상)이 수여된다.

참가 희망자는 10월 18일까지 광주시 차이나센터 홈페이지(gwangju.cfc.kr, 문의 062-383-8868)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상 및 수상 작품은 10월 30일 광주시 차이나센터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5·18묘지 추석맞이 새단장 민족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21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별초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고용청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지원

29일까지 지도기간 운영

광주고용노동청이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체불예방 및 조기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오는 29일까지 추석 명절을 대비해 광주지역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신속한 청산을 지원한다.

노동청은 전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체제(평일 오전 9시~밤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광주 지역 내 체불사업장의

임금체불 사전 및 '체당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및 체불임금에 대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노동청은 21일 현재까지 광주 지역 업체 72곳 335명의 임금 및 퇴직금(20억 4800만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수능 응시자 지난해보다 11% 줄어

전국 지원자는 10.1% 줄어

광주·전남교육청이 2021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수능 시험에는 1만 6378명이 지원해 작년보다 2185명(11.8%)이 감소했다. 전남에서는 1만 4208명이 접수해 작년보다 1785명(11.2%)이 줄었다.

전국 수능 응시지원자는 49만 3433명으로 지난해 54만 8734명보다 5만 5301명(10.1%) 감소했다.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수능 지원자 감소 폭이 작년의 4만 6190명(7.8%)보다 더 커졌다.

재학생이 34만 6673명(70.2%)으로 작년 대비 4만 7351명(12.0%) 감소했고, 졸업생도 13만 3069명(27.0%)으로 지난해 대비 9202명(6.5%) 감소했다. 반면에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만 3691명(2.8%)으로 작년 대비 1252명(10.1%) 증가했다.

광주 지역 지원자 현황을 보면 재학생은 지난해 대비 2172명 감소한 1만 2433명(75.9%), 졸업생은 46명 감소한 3458명(21.1%),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33명 증가한 487명(3.0%)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재학생이 1746명 감소한 1만 2012명(84.5%), 졸업생은 61명 감소한 1896명(13.3%),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20명이 증가한 300명(2.1%)으로 조사됐다.

위경중 전남교육청 교육국장 "코로나 19 상황에서 수능 시험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과 시험장 관리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등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교사단체 "학교 돌봄 국가·지자체가 맡아야"

교사단체들이 학교 돌봄의 정상화와 질 높은 운영을 위해 돌봄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 교사노조와 교사노조연맹은 21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에게 부과하는 돌봄 업무는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돌봄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주장에 귀 기울여 함께 논의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노조연맹은 설문조사와 입법안 제출 활동, 서명운동, 국회의원 면담 등의 활동을 통해 현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온종일 돌봄체계의

구축'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보육과 돌봄은 분명히 교육의 영역과 다르다"면서 "교육 당국과 정치권은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현재 학교 돌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교육 당국의 무책임하고 원칙 없는 돌봄 정책에 대해 교사들의 분노가 일제적으로 다다르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돌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즉시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 초교 '코로나 블루' 위로 심리방역 주력

상담·친구 만나기 등 행사

광주 지역 초등학교들이 '코로나 블루'(코로나로 인한 우울감)로 지쳐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심리방역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광주동부초는 비대면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 심리방역 교육을 위해 '생동 행복 카드 뉴스'를 제작·보급해 활용하고 있다.

5분 안팎의 '생동 행복 카드 뉴스'는 매주 1회 발행되며, 학생들의 이해와 참여를 위해 다채로운 화면에 생생한 음성도 담아 전달,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학생 심리방역 3회, 코로나19 전염 예방과 대응 방법 3회, 원격수업 참여 2회, 아동학대 예방과 학교폭력 예방 관련 각 1회 등

모두 14개의 영상이 제작됐다.

한울초도 학교 방문·전화상담·친구 잠깐 만나기 행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고 있다. 한부모 가정 학생에게는 반찬·간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연세초 역시 소규모 체험학습을 대중 접촉 없이 진행하고 있다.

삼정초는 1학기 중 교육복지 대상 30가구에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에게는 난독증 검사·부모 상담 활동 등을 지원했다.

김철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집에 따라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며 교직원들에게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영광 법성포 굴비의 명가

영광(법성포)굴비·고추장굴비

부세 보리굴비 전문생산업체

전문판매점을 모집합니다!

대 31~33cm

중 29~30cm

소 28~29cm

녹차 얼음밥과 찌서 드시는 보리굴비는 그 맛이 우리들에게 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보리굴비의 원산지는 중국산입니다.)

저희 회사는 영광굴비, 고추장굴비, 보리굴비 전 제품을 해외로 수출합니다.

유명수산 영어조합법인

T. 061.356-8100, 8060